국보·보물 소개展 신규 대상 매년 개최

문화재청–국립중앙博 합의

신규로 지정된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내년에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국보·보물로 새로 지정된 문화재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매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첫 특별전은 2017년 하반기에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특별전을 통해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은 여러 분야의 중요 문화재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사립 기관이 보유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장자에게도 자신이 소중히 보관해 온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 중이던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호)'의 '비신(碑身)'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을 추진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자비선·행복창조캠프, 포교원 신규 인증 받아

'중독 치유' 보완 후 재심사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하는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에 '자비선'과 '행복창조캠프'가 신규 인증됐다.

조계종 포교원 인성교육계발 인증위원회(위원장 혜거)는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관계를 열어주는 감정조절 명상 자비선'과 '행복창조캠프'를 심의 인증했다.

포교원에 따르면 자비선사의 자비선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행불선원의 행복창조캠프는 모든 존재가 불성에서 창조된 것이며, 일체가 곧 '나'이고 '부처'임을 바탕으로 한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기 위한 '잣나무숲 명상 리셋 7단계'와 '행복창조 12선(選) 스토리텔링'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한편 위원회는 청소년과 현대인들을 위한 중독 치유프로그램에 대해 불교적 가치를 보완해 추후 재심사하기로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선암사 소유권 두고 조·태 갈등 '재점화'

순천지원 14일 태고종 승소 판결… 조계종 항소·태고종 성명

비구·대처 간 분쟁 이어진 선암사
순천지원 조계종 등기 불법성 지목
조계종 "종단 정통성 판례 위배돼"
태고종 "대처 법통 인정해야" 환영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정면 충돌했다. 광주지방법원이 1심에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조계종이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법적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은 7월 20일 성명을 통해 "7월 1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법통을 이어오고 그 재산의 소유권을 승계한 사찰은 태고종선암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조계종 선암사 측이 태고종 선암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인 1972년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함부로 바꿨다"며 "이에 태고종선암사는 조계종 선암사가 함부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바꿔놓은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순천지원은 조계종선암사가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불법 등기를 했으니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또 "조계종 측과 소유권 다툼을 한 부동산은 △대웅전·팔상전 등 22개 건물 및 전각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사사지 8,086평 토지 △같은 리 산 48-1 임야 등 3건"이라고 명시하고 "앞서 열거한 부동산들은 원래 선암사가 신축했거나 토지조사령(1912년)·조선임야조사령(1918년)에 의해 선암사 명의로 사정(査定)된 것을 근거로 지난 1971년과 1972년에 태고종선암사 명의(또는 선암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측은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반박과 항소의지를 밝혔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은 "순천지원 판결 근거인 통합종단에 대한 태고종 선암사 대중들의 반대결의는 증거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한국불교 정통성이 비구종단에 있음을 밝힌 판례를 뒤짚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법원 스님은 "조계종 선암사가 1962년 문교부 등록문건과 1965년 전라남도의 조계종 가입 확인문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태고종 선암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같은 경우인 봉원사 소송에서도 조계종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 배경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법원 스님은 이어 "2011년 순천시로부터 조계종과 태고종이 함께 선암사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합의를 깨고 먼저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측 변호인 김봉석 변호사는 "오히려 조계종으로 선암사가 등록한 적법한 증거는 1962년 조계종 통합종단 등록시 문교부가 확인해준 문건 등 훨씬 많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사찰인 순천 선암사는 비구·대처 분규가 진행된 1950년대 이후로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립해오고 있는 곳이다. 1962년 통합종단 조계종 출범 이후 조계종 측은 선암사를 조계종으로 등록했으며, 1965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산하 사찰로 등록을 완료했다. 통합종단 참여를 거부한 선암사 대처스님들은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소유권 등기를 진행했다.

이에 당시 '조계종 선암사' 측 주지 스님이 1972년 문화공보부장관의 '선암사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사실증명원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변경했다.

점유를 태고종 스님들이 해왔기에 선암사는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지만 점유권은 태고종에게 있는 사찰이 됐다. 지속되는 분쟁에 정부는 1970년 승주군수에 이어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정부의 관리 속에 사찰정재 망실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은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함께 인수,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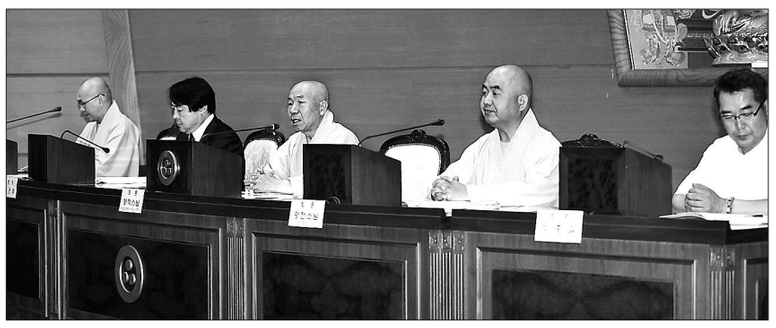
2014년 태고종 선암사 측은 1972년 조계종 선암사로의 소유권 변경 절차가 부당함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형연)는 7월 14일 '태고종 선암사' 측이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김주일·노덕현 기자

"3200여 종단 사설사암 분담금 납부해야"

조계종, 19일 분담금 공청회서 '사설사암' 문제 수면위로

공찰 비해 적은 분담금 부과돼
향적 스님 "사설사암 개념 폐지"
교구행정력 향상 선행 지적 나와


조계종은 7월 19일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계종의 중앙재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담금에 대한 개편을 앞두고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유승)와 분담금제도개선실무추진위원회는 7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분담금 제도 개편을 위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선 사찰의 분담금 형평성, 특히 공찰과 사설사암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김관태 경영컨설팅 산림 대표는 "분담금 문제는 공찰에 비해 사설사암이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분담금을 부과받는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 사설사암의 입장에는 창건 후 종단 지원없었음에도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설사암 난립에 따른 지역불교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이종길 동화사 종무실장은 "동화사가 본사인 9교구는 131개 중 사설사암이 93개이며 38개 공찰이 전체 85%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사설사암에 대한 명확한 분담금 지침 등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교구본사에서 분담금 분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도 "공찰과 사설사암의 개념 자체를 폐지해야 조계종 발전에 비전이 있다"며 "3200여개에 달하는 조계종 사설사암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해인사의 경우도 사설사암이 공찰보다 많다. 문제는 본사 행사에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사유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래서는 조계종에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중앙재원 마련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은 분담금 현실화가 교구중심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광전 스님은 조계종의 성격이 연합체이며 현 집행부가 교구중심제를 표방한 만큼, 목적사업에 교구공영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광전 스님은 이어 "현행 분담금 제도도 예산, 즉 총매출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를 경비를 제한 순소득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한 사찰 종무실장도 "현재 1명이 말사 재정관리를 하고 있다. 협조를 잘해주는 사찰(사설사암)도 있지만 맞지 않는 재정자료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사찰이 많다"며 "사실상 관리인력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이어 조계종은 9월 중 2차 공청회를 열고 10월 입법예고, 종무회의를 거쳐 11월 중앙종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네 번째 연임'

조계종, 19일 4기 위원 19명 위촉장 전달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4기 연임이 확정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7월 19일 4기 화쟁위원단 19명을 위촉했다. 4기 위원장은 1·2·3기에 이어 도법 스님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에 흥선 스님과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도법 스님과 부위원장 흥선 스님, 혜조 스님, 이성구·조형일·신호승·정웅기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도법 스님은 "2010년 봉은사 직영 지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화쟁위원회가 벌써 4기를 맞았다"며 "이후 '화쟁'을 화두로 여러 사회문제에 접근하며 역량 부족을 느꼈지만, 이 사회에 '화쟁'이란 갈등 해결법을 알린 것만으로도 성과라 생각한다. 화쟁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장서 4기 화쟁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불교에서 '사바세계'는 갈등이 없는 세상을 뜻한다. 갈등이 없다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은 행복해 질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사회 갈등을 다루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4기 화쟁위는 더욱 끈기 있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도법 스님은 "종단이 (화쟁위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활동 소회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오시는 부처님을 맞이 합시다. 佛子 여러분께 알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총회와 문도회에서 유통정법사장지은(流通正法師長之恩)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西天과 東土 직계 큰스님 靈位를 모시고 법맥계보편찬을 마치고 사부대중이 문도의 단결과 정진을 위하여 당호 건당식과 대가사 불사 회향을 기념하여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 日時 : 佛紀 2560년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 ■ 場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1길 102-15 대무량사 | ■ 문의 : 055)672-4394

三師 證明法師

달제 지운 큰스님 (제주 극락암 조실) / 대허 만선 큰스님 (조계종 경주 보문선원장) / 몽산 관일 큰스님 (조계종 영천 도솔암 조실)

流通正法師長之恩 法會奉行委員

종 정	법련 덕범	문화원장	혜안 행석	제주종무원장	혜봉 행범	진주종무원장	혜안 행석
총무원장	혜봉 행범	중앙포교원장	행화 상욱	제주총무국장	한산 영건	거제종무원장	행화 상욱
종회의장	삼봉 행현	국제문화원장	도명 행원	직할종무원장	남송 덕산	마산종무원장	대비
종회부의장	정철 행철	감찰원장	법타 행춘	서울인천종무원장	만봉 행민	부산서교구종무원장	청련
승정원장	자인 행림	포교사회회장	대명 행경	양산종무원장	원봉 행주	총무원사무총장	남송 덕산
중앙선원장	대성 행문	포교사회부회장	청정. 청량	창원종무원장	벽봉 행수		
호법원장	원봉 행주	일본동경종무원장	만공 행덕	밀양종무원장	대명 행경		

고성 대무량사 도일 행청 / 진동 미륵암 구산 행안 / 산청 약원암 대력 / 마산 천수사 대륜 행선 / 제주 극락암 법해. 덕봉 / 제주 대산. 성타. 덕봉. 덕화 / 산청 종현 / 통영 해암 / 거제 대유 / 일본 보림 / 창원 반야. 일광 / 마산 묘심. 대련. 정심 / 진주 명성 / 마산 성수 행광

外 門徒一同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流通正法師長之恩 法會奉行委員長 俞禹植 혜봉 행법 합장